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추진정책

이 신 재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추진정책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이 신 재

1.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현황

- '01년 전체재해(81,434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1.3% (17,324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9.1%(56,250명) 발생
 - 한편, 전년대비 재해증가자(12,458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73.7%(9,185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5.0%(11,833명) 발생
 - ※ '01년 전체 재해율 0.77, 5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1.44,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1.16
 - '01년도 업무상 질병이환자는 4,396명이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43.4%(1,908명) 차지

< '00~'01 산업재해 현황 요약 >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01	'00	증감율	'01	'00	증감율	'01	'00	증감율
전체	81,434	68,976	18.1	2,748	2,528	8.7	0.77	0.73	5.48
5인미만	17,324	8,139	112.9	512	220	132.7	1.44	0.90	60.0
50인미만	56,250	44,417	26.6	1,554	1,309	18.7	1.16	1.08	7.41

- 소규모사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재해예방, 생산성 향상 및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 '01. 10월 총 17만개 소규모사업장에 732억원을 투입하여 「CLEAN 3D 사업」 수행
 - ※ CLEAN 3D 사업 : 'CLEAN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 협력업체 기술지원사업, 건강도우미사업

-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은 사업장 요구에 기초하여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종합보건관리 등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47,500개소)
 - 기술지원 대상사업장 중 5인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보유공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실시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기술지원 서비스 질관리를 위하여 실시기관(81개소)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SHARP Index)('02. 5)
-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건물 관리업 등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간이검진, 건강상담, 스트레칭 및 운동지도 등 개인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도우미 운영(30,000개소)

< CLEAN 3D 사업 추진실적 >

(2002.5.31일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목 표	접 수	자금지원결정	지 원
조성지원사업	10,000	12,599	3,836	1,576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120,000	-	-	108,187
협력업체 기술지원사업	10,000	-	-	10,321
건강도우미사업	30,000	-	-	29,611

2. 보건관리기술지원 추진방향

□ CLEAN 3D 사업의 확대·개선

- 「CLEAN 3D 사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 및 대상사업장의 긍정적 평가로
 - 사업기간 연장,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계 강화 등의 조치 강구
-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경우
 - 소규모사업장의 작업장 유해인자가 비교적 단순하고, 노·사의 인식수준이 저조하여 단기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03년부터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로 이분화 추진 예정
 - 또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사업장의 만족도 조사 및 실시기관 사업수행 실태 평가 계획('02. 7)

□ 기술지원 내용 확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을 107종에서 169종으로 확대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의 기준제시 및 예방프로그램 작성·시행 등 사업주 의무부여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소음 및 진동작업, 이상기온에서의 작업 등에 대한 예방기준 신설 등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기술지원 내용도 확대 필요
 - 보건관리자 직무 또한 작업방법개선, 인간공학적 작업공간 확보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영역까지 확대되도록 법제화 예정

□ 건설업 보건관리기술지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중 근로자 건강상담, 진동방지설비, 혈압계, 간이휴게시설 등 근로자 건강관리 항목이 확대되고, 근로자 건강관리 사용한도가 상향화(10% 이하→20%이하)될 예정
-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약화는 대형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고령근로자의 기초질환(고혈압 등)관리, 일상 건강관리를 통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이 필요한 바, 소규모 건설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기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기술지원사업 개선전략 모색

-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 효과분석-안전보건기술 지원 다원화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용역('02. 2) 결과를 바탕으로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가칭)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회의」 운영, 시범사업 운영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발전적 개선전략 마련
- 특히, 참여사업장 중 안전보건의식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세제 감면, 산재예방시설 개선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